

백전백승하는 조선의 힘

조선의 기상은 무엇으로 도도한가. 세계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도 강건에 놀리워 작심하고 가던 길도 포기해야 하고 가려면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희비극이 펼쳐지는 오늘 조선은 어떻게 되어 자기의 존엄과 권위를 당당히 지키고있으며 그 강의한 신념과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풀지 못하고 있는 조선과 관련한 수수께끼이다.

1

오늘 지구상에서 매일이 일어나는 정치적과정과 무수한 인명을 앗아가는 집단의 배경에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세력의 검은손이 어른거리고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계질서를 만들어놓고 그에 순응하지 않고 었서나가는데 나라들에 대해서는 낮은 압력을 가하고 때로는 힘으로 놀리버리고있다.

불가야 《정의》로 단강하고있고 북잡다단한 세계에서 강권과 위협에 놀리워 제갈길도 못하고는 나라들이 한들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은 확연히 다르다. 령토는 작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지만 자주의 빛, 정의의 빛으로 누리에 위상이 높다.

하다면 조선이 만난시련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억센 자주적신념을 지니신 회세의 위인이 계시고 그의 령토를 따르는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가 있기때문이다.

자주정치가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정치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 그 신비한 힘의 바탕에는 자기 령토자에 대한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뢰와 지지가 놓여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 위업은 처음부터 순란치 않았다.

생소한 그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을 믿고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였는가.

《일본은 신흥군사강국이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과 그를 안받침하는 경제력, 그들의 광신적인 사무라이정신을 타승한다는것을 의미했다. 이런 일본군대가 오랜 세월 많은 희생을 내면서 김일성장군부대토벌에 노력하였지만 이상하게도 토벌할수 없었다. 토벌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커가는 김일성장군부대, 실로 20세기 역사를 앞설수있에서 일본군대가 전멸하고 세계의 군사가들이 놀랐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해일숙》에 비유하였다. 그러나 종당에 흰기를든것은 일본이었다.

그때를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은 우리를 고립무원한 존재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이 파괴치는 인민의 바다에 떠있었다는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조선전쟁때에는 또 어땠는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각국의 언론들은 위구를 표시하며 저마다 이 전쟁의 결말을 서둘러 예측하였었다. 보병총을 쏜 조선과 원자탄을 가진 강대국간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지는 변하다고.

이런 여론을 산산이 흩날리며 《침략세력들은 대문을 발길로 걸어서 방문을 열었으나 방으로 들어갈수도 나올수도 없는 진퇴방난의 처지에 빠졌으니 벌의 등지를 헤쳐놓은 격이 되고말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3년 간이나 조선땅에서 두들겨맞았으니 나라가 해방된지 5년밖에 안된 조선인민이 어떻게 되어 침략세력에게 파멸을 고하는 강력한 존재로 나서게 되었는가.

- 왜 찾아가다니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않겠소. ... 전화의 나날 깊은 밤 북

으로 걸음을 다우치던 법동농민의 목소리에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세계전쟁사의 기적에 대한 해답이 있다.

참혹한 폐허에서 과연 조선이 다시 일어설수 있겠는가.

이후에 쌓인 세계의 시선이 다시금 조선으로 쏠렸을 때 막중한 중하를 짊어지신 수령님께서 힘이 되어준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라고 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세계적인 약성전염병이 지구를 휩쓸고 혼란이 날로 가중되는 지금 시시각각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우리는 두려움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창조와 건설을 힘차게 벌려가고있다.

2

아마 고난과 시련을 오랜 기간 그토록 많이 겪어온 인민을 꼽는다면 이 나라 인민일것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와 봉쇄책동은 이 땅에서 인민들의 생존권도 말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공화국의 인민들은 어제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기 령토자만을 끝까지 받들고 따르고있다.

무엇이 모진 광풍이 불어도 오직 자기 령토자를 그토록 믿고 따르며 하고있는 것인가.

그것은 령토자가 펴시는 정치가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이고 령토자가 가리키는 길이 민족민단의 변명과 잇닿아있는 가장 올바른 승리의 길이기때문일것이다.

조선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놓여있던 암흑의 세월 인민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안겨준것은 백두산에서 울려온 항일의 총소리였다.

일제의 백만대군을 락염처럼 쓰러놓시는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 힘과 용기를 내어 조국해방성전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던 조선민족이었다.

세계가 놀라는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위대한 전승신화도 탁월한 평양을 모시어 이룩된것이었다.

청소한 공화국을 앞잡아 보고 덤벼들었던 침략세력은 일제를 무뎠 풀어놓은 백두산장군의 신묘한 지략에 걸려들어 련이 참패를 면할수 없었다.

병사 한사람한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온갖 은정을 다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싸우는 군인들의 사기와 힘을 더욱 배해해주었다.

포화의 나날은 하늘도 감복할 사랑과 정의 살력을 번져며 흘러온 나날이었다.

수십년간 십나라오랑캐들이 퍼갈대로 퍼내간 빈터에 해방후 인민들의 살림을 하나하나 갖추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은 모두에게 꿈만 같았다. 하물며 상상이나 현실이 있었는가. 다름아닌 전시에 세계전쟁사에 없는 화산휴양소를 내오도록 하시고 전반적무상치료를 실시하시실줄은...

그 사랑, 그 정이 하다고 마위 팔다리도 부러지면 턱으로 증거압축을 누르고 입에 수유관을 물고서라도 집진으로 육박한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다.

이로부터 다음의 귀결이 나온다. 자기 인민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수령의 령토를 받을 때 백전백승한다.

승리, 이 말과 더불어 이 나라 인민은 전화의 나날만을 추억하지 않는다.

전승의 광장을 지나고 천리마에 앉아 하늘을 날며 공업화의 동음으로 신생조선의 힘을 세계로 뻗칠 때 인민은 삼가 경의를 드렸다.

남들은 눈앞의 유혹에 현혹되어 자력을 포기하고 《국제분업》에 가입할 때 자

립경제의 강력한 토대를 쌓아올리시느라 세월의 모진 눈비를 다 맞으신 위대한 수령님.

그 고생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재더미에서 무슨 증공권인가며 시비중상하는자들의 궤변을 인민은 대고조의 봉화로 짓눌러버렸다. 그것으로 천리마시대를 열어 폐허가 깃들었던 불모지에 자립의 만년기초를 앉히고 강유력한 생체를 쌓아올렸다.

인민이 세대를 이어가는것은 필연이지만 승리의 대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

개승, 그것은 또 하나의 피어린 개혁이었다.

90년대에 지구를 휩쓴 회오리바람은 오늘도 세인의 땅막속에 깊숙이 찍혀져있다.

우 무엇이 연고가 되어 주권국가들이 미사일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초대국의 미사일을 부러진 화살로 만들겠는가.

세계적인 분노의 파도로 번진 정치탁류를 놓고 못정치인들, 아니 력사가 세계앞에 종대질문을 제기하고 있을 때 《김정일국방위원장

이 선군정치로 아메리카제국의 횡포에 정치폭탄을 던졌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쟁이 모든것을 검중하듯 최악의 극한점들은 공화국의 면모를 세계앞에 밀부리 채 파헤쳐 보여주었다.

그 노을빛이 오늘도 행성을 뒤덮으며 발산하고 있다.

《세계는 아직 이런 피해를 목격한적 없다. 현대 조선은 신성한 샘처럼 청신하다. 조선에 가서 살고싶다.》, 《이런 전염병상황에서 평양종합병원건립이냐? 강원에도, 약성전염병에도 끄떡없는 조선인민이 부럽다.》, 《궤변의 장막이 벗겨졌다. 대체 인민의 불모지는 어디고 사랑의 천국은 어디인가? 어느 령토자가 자기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날날이 검증되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수령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인민이다.

세인이 경이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주제무기들의 초고속개발과 천지개벽된 강산의 모습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맞바꾼것이 아닌가. 누구나 쉽게 체득할수 없는 생의 근부리치를 이 나라 인민은 이렇듯 자신들의 단단체질을 통해 새겨안았다.

《20세기 40년대에 조선과 함께 출항의 닻을 올렸던 정권들이 90년대 회오리바람에 락조마냥 사라져버릴 때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존엄은 금시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그로서 자기 령토자에 대한 이 나라 인민의 믿음이 이렇듯 순결무구하고 굳건한 것이다.

다시 서방의 한 인사는 공화국의 현실에서 받은 충격을 이렇게 괴역했다.

《20세기 40년대에 조선과 함께 출항의 닻을 올렸던 정권들이 90년대 회오리바람에 락조마냥 사라져버릴 때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존엄은 금시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다시 서방의 한 인사는 공화국의 현실에서 받은 충격을 이렇게 괴역했다.

《20세기 40년대에 조선과 함께 출항의 닻을 올렸던 정권들이 90년대 회오리바람에 락조마냥 사라져버릴 때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존엄은 금시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20세기 40년대에 조선과 함께 출항의 닻을 올렸던 정권들이 90년대 회오리바람에 락조마냥 사라져버릴 때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존엄은 금시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20세기 40년대에 조선과 함께 출항의 닻을 올렸던 정권들이 90년대 회오리바람에 락조마냥 사라져버릴 때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존엄은 금시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20세기 40년대에 조선과 함께 출항의 닻을 올렸던 정권들이 90년대 회오리바람에 락조마냥 사라져버릴 때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존엄은 금시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20세기 40년대에 조선과 함께 출항의 닻을 올렸던 정권들이 90년대 회오리바람에 락조마냥 사라져버릴 때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의 자주적존엄은 금시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모방이 아닌 개발창조

창조라고 하면 이미 있는것을 본따 만드는것이 아니라 새로운것을 만든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주세계를 형상한 24m높이의 상징탑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을 방문하여 각이한 양상의 건축물들을 본 외국인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물들이 호화로운 건태적인 육구에 따르는 방향, 자기것이 없는 얼치기식, 기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건축물들이 자기식이 뚜렷하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건축술에 밝으시고 국가관리에서 민족성을 매우 중시하신다는것을 잘 압수 있다.》고 감흥을 터놓았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모방이 아니라 개발창조를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축부분에서도 건축물들을 우리 식의 독특한 창조물로 세우도록 깊은 관심과 로고를 기울이신다.

이러한 실례를 알게 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3층고층빌딩을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건물로 세우며 과학의 미시세계인 전자자리길과 과학의 거시세계인 우주세계를 다같이형상하도록 이리시였다. 하여 미래과학자거리라는것이 직감적으로 알릴수 있게 전자자리길의 모양으로 타래쳐오르게 시공한 53층고층빌딩위에

우주세계를 형상한 24m높이의 상징탑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을 방문하여 각이한 양상의 건축물들을 본 외국인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물들이 호화로운 건태적인 육구에 따르는 방향, 자기것이 없는 얼치기식, 기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건축물들이 자기식이 뚜렷하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건축술에 밝으시고 국가관리에서 민족성을 매우 중시하신다는것을 잘 압수 있다.》고 감흥을 터놓았다.

조선을 방문하여 각이한 양상의 건축물들을 본 외국인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물들이 호화로운 건태적인 육구에 따르는 방향, 자기것이 없는 얼치기식, 기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건축물들이 자기식이 뚜렷하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건축술에 밝으시고 국가관리에서 민족성을 매우 중시하신다는것을 잘 압수 있다.》고 감흥을 터놓았다.

조선의 방문하여 각이한 양상의 건축물들을 본 외국인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물들이 호화로운 건태적인 육구에 따르는 방향, 자기것이 없는 얼치기식, 기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건축물들이 자기식이 뚜렷하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건축술에 밝으시고 국가관리에서 민족성을 매우 중시하신다는것을 잘 압수 있다.》고 감흥을 터놓았다.

조선의 방문하여 각이한 양상의 건축물들을 본 외국인들은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물들이 호화로운 건태적인 육구에 따르는 방향, 자기것이 없는 얼치기식, 기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건축물들이 자기식이 뚜렷하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건축술에 밝으시고 국가관리에서 민족성을 매우 중시하신다는것을 잘 압수 있다.》고 감흥을 터놓았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농업생산과 화학공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순천비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공장의 준공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로 승리의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발전잠재력을 널리 과시하고있다.

오늘 공화국 그 어디에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하나의 같은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토자라 자력갱생의 가치높이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의 구호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으로 만들수 있는 비결은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들이 자기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믿고 달려볼때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서 도출된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신 이야기는 지하전동차에만 새겨져있지 않다.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고야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좋아할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오르신 경비행기의 시험비행길에도 어려웠다.

그날들에 인민이 심장에 새긴것은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었도 자력자강의 위대함에 걸린 일부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게 위해서였다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의것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 민방에 빛내시려는 그의 구상과 의지에 받들려 인민들이 선포하고 자랑하는 길좋은 제품들이 날아늘어나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신발을 가볍고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 손수 저울에 신발의 무게까지 달아보시였고 화장품공장을 찾으면서서는 화장품의 향내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시험해보시였다. 언젠가는 평양양발공장에서 생산된 양말을 몸소 신어보시면서 얼마나 질긴가, 부죽점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가능해보시고 개선택도 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창조와 건설의 대면영기속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무수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자기의 힘과 기술로 다발적으로,련방적으로 행성을 진감시킨 주체관들의 장쾌한 외침, 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명제품, 명상품들, 사회주의바다에 펼쳐진 황금해의 새 력사, 풍요한 가을을 그리며 협동전야마다 차남치는 과학농사열풍...

지나해에만도 삼지연시와 양덕, 중평땅이 천지개벽되

었다.

이 모든 기적과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토자라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굴의 정신력, 완강한 투쟁으로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확공식연설에서도 우리의 행복과 미래는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하고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고, 평양종합병원은 적대세력들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를 웃음으로 짓부셔 더 좋은 레일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우리 혁명의 굴함없는 형세를 그대로 과시하는 마당이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고난과 시련속에서 공화국 인민이 생명으로, 생활로, 희망으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국품으로 확립된 자력갱생이아말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어제와 오늘을 비껴안고 더더욱 찬란할 레일을 기약해주는 비약의 보검이며 추동력이다.

이런 리상실현을 위해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앞길에는 승리의 직선주자가 펼쳐져있다.

본사기자 김철진